

요한 3 서 묵상 2
(10/10/2020, 토)

찬양: 459(514)(누가 주를 따라)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3 서 1:5-10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요한은 자신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심히 우려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신실한 일. 요한은 가이오가 신실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5 절 -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구절은 가이오가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보살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자신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자신과 함께 목숨을 내어 놓고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은 6 절에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가이오를 만난 순회 전도자들이 모든 성도 앞에서 가이오의 선행을 증거했음을 알립니다. 요한은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 말씀은 가이오가 지난 번에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듯이, 앞으로 요한이 보낼 다른 전도자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7-8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8 절 - 7.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가이오에게 자신이 보내는 동역자들을 부탁한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면서 그들로 부터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가르침을 베푼 후에 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많은 경우 교회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교회의 후원도 받았지만,, 자신이 직접 일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의 후원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현지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를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 중의 하나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것은 복음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 선교에 참여하고 헌신하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과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8 절에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대접과 후원을 “신실한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이오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디오드레베를 질책한 요한. 가이오를 칭찬한 요한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디오드레베를 언급하며 질책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9 절)**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과거에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에 편지를 썼음을 말합니다. 그 편지는 아마도 순회 전도자들을 보살피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편지를 가진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9 절). 디오드레베는 교회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높이는 일에 힘썼고,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아마도 요한의 권위에 도전하며 요한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방문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학자들은 그가 아마도 영지주의 같은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요한이 보낸 사역자들을 배척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은 **‘제우스가 기르는 자’**라고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동역자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가이오처럼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10 절 -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근거 없는 헛된 비난’**이라는 뜻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악한 말로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을 비방하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이단 사상에 빠져,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부당하게 모함하여 교회를 힘들게 함으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스스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는데, 이 구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하면, **‘만일 내가 가면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그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경고는 주님의 경고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타락과 최악의 모습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교회 내에 있었지만 너무나 달랐던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도전하고 성찰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가이오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과 선교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 실천하게 하옵소서.
2. 나는 어떤 성도인지를 오늘도 깊이 성찰하며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3. 혼돈 속에 있는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회개함으로 변화받으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